

“하나의 벼, 모두의 벼”

www.hanbeot.org

사람 세상

격 월 간 발 행

2023. 9/10

vol.298



그녀의 바다



지난여름은 많은 비와 무더위로 힘들었습니다.

이제 맑고 명랑한 가을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지와 함께

덕스러운 추석을.

어려운 이웃에게도

마음 쓰는

기꺼운 명절 맞으소서.

그녀의 바다



침대, 한 평의 3분의 1. 그녀는 이 작은 공간에서 산다. 말을 하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한다. 식사나 용변도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56년째이다. 부모는 아주 어릴 때 그녀를 시설에 맡긴 후 소식이 없다. 지금은 시설에서 나와 장애인 주택에서 산다. 가진 것이라곤 침대 하나가 전부이기에 그녀가 만나는 세상은 날마다 새롭고 부럽다. 여행은 서정의 생동. 지난 7월 하순, 누운 채 바다로 갔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 그녀는 오래도록 바라보고 있었다. 바다는 그녀에게 무엇일까?



“20년 만에 바다 구경을 하네요.”, “설악산이 강원도에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처음으로 케이블카라는 걸 타고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니 신기해요”

장애인들의 탄성에 동행한 직원과 보조인들은 말을 잇고 숙연했다.

한번은 올해 서울시와 함께 누워 사는 분(와상장애인)들에게 숙박여행을 지원하고 있다. 침대를 실을 수 있게 차량을 개조함으로 가능했다. 6월부터 7월 말까지 8명의 장애인과 가족, 보조인, 직원 등 모두 33명이 다녀왔다. 이 특별한 여행은 11월까지 이어진다.

휠체어가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 노고단



해발 1,500m의 노고단은 휠체어에서 늘 올라다 봐야 하는 장애인에게 ‘높이’에 대한 성취감을 맛보게 하는 곳이다. 이동봉사대 시절, 봉사자들이 휠체어에 끈을 달아 끌고 오른 노고단 등정은 정상의 감흥을 더했다.

휠체어가 오를 수 없는 곳이 된 노고단

그러나 지금은 등산로에 20~30m로 간격으로 깊게 파낸 배수로를 만들고, 차량 통행을 막아 휠체어가 오를 수 없는 곳이 되었다. 이에 한뼘은 여러 차례 장애인차량 통행을 요청하던 차, 지난 5월 국립공원공단에서 장애인차량 운행을 허가하고, 노고단 정상에 9월 하순까지 장애인 객실을 만든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왔다.



노고단 단풍

노고단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지리산자락의 단풍은 여느 절경과 눈맛이 다르다. 정상의 홀연한 고적(高適)과 가물가물한 발아래 세상을 내려다보면 짐짓 삶의 애증을 떠나게 한다. 더구나 장애인 객실이 생긴다니 그 유명한 노고단의 아침 운무도 볼 수 있으리라.

단풍 절정기 10월 중순

노고단 단풍 절정은 10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이때 맞춰 2~3회에 걸친 숙박여행을 제공한다. 여행 참가자는 와상장애인과 가족(보조인), 그리고 일반 휠체어 사용자 1명과 가족(보조인) 등 8명 이내로 참가비는 없다 (한 끼 식비 1만원 초과비용은 자부담).

신청: 최우람 국장(02-393-0661)

미얀마 최초의 어린이합창단



지난 8월 15일 광복절, 미얀마 양곤의 빈민지역 ‘달라’에서 아이들의 합창이 울려 퍼졌다. 최초의 어린이 합창단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최초’ 라니, 미얀마에는 어린이합창단이 없다는 말인가? 안타깝게도 그렇다.

초등학교의 음악시간

미얀마 초등학교에 음악시간이 처음 생긴 때는 놀랍게도 2017년, ‘아웅산 수치’가 처음으로 교과에 넣었다. 그런데 문제는 가르칠 선생이 없다. 교사들이 음악을 배운 적이 없는 데다 학교엔 어떤 악기도 없기 때문. 그럼 수업을 어떻게 하지? 유튜브를 틀어주는 게 고작. 그것도 일부 학교에서만.

방정환의 독립운동

지금의 미얀마처럼, 3·1 만세운동의 좌절은 조선의 절망이었다. 이때 방정환이 한 일이 어린이잡지와 동요 보급이었다. 곧 그의 독립운동이었다(방정환은 독립운동가로 서훈 받음). 그는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조선의 희망이라며 어린이잡지 창간호부터 매회 빠짐없이 동요를 싣는다. 최초의 창작동요 ‘반달’ (푸른 하늘 은하수~)은 방정환이 후배인 윤극영에게 부탁해 만든 동요였다.

합창단원 선발

달라 사원학교생 950명 중 합창 희망생 140명을 대상으로 음정 테스트를 했는데 23명만 음을 따라부를 수 있을 정도로 음감이 둔했다. 아이들이 동요를 듣거나 부르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였다. 미얀마 TV엔 어린이 프로가 없고, 동요 부르기 대회도 없다. 100년 전의 우리나라처럼.

불행한 나라, 미얀마에 동요를!

지난 8월부터 방정환기금회원인 민성숙 선생이 미얀마로 가서 어린이합창단을 만들고 있다. 불행의 미얀마에 희망을 지피기 위해서이다. 합창단이 육성되면 전국을 돌며 동요를 보급할 계획이다.

날개달기회원들의 기부금으로

합창단 지휘 봉사자 민성숙 선생의 항공료와 체류비는 날개달기 회원들의 기부금으로 충당했습니다.

미얀마의 어린이날



어린이날은 선물 받는 날

지난 8월, 미얀마의 보육원 2곳을 방문해 어린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선물을 전해주며, 미얀마에 없는 어린이날을 축하했습니다. 한 곳엔 합창단을, 그리고 다른 한 곳엔 그네와 방방이(트램블링) 2대, 배드민턴, 책걸상을 전해주었습니다. 특별히 방방이와 그네는 한국의 어린이날을 맞아 이명자, 최재화 선생과 미국의 스텔라 여사가 마련한 선물이었습니다.

처음 타보는 그네와 방방이

아이들이 차례를 기다립니다. 방방이는 한 번에 3명만 탈 수 있어 어린 꼬마들은 순서가 올 때까지 40~50분을 기다립니다. 구은희 선생이 선물한 배드민턴은 고학년 차지. 아이들이 신이 났습니다. 큰 부자가 된 듯 뛰어다니며 얼굴 가득 웃음 짓습니다.

새벽의 놀이터

어제 방방이를 타지 못한 아이들이 새벽에 일어나 놀이터로 와서 놀았다고 하네요. 어젯밤, 아이들은 그네와 방방이를 안고 잠이 든 모양입니다.

이번 방문엔 합창단 지휘봉사자 민성숙 선생과 백진양, 이택규 님이 함께했습니다. 미얀마는 우리가 배울 만한 일이 많습니다. 많은 회원이 방문하면 좋겠습니다.



와, 여름 김치다!



김장이 떨어지고 입맛을 잃는 여름, 김치담그기나 사 먹기가 부담되는 차에 참 고마운 선물 나눔행사를 가졌습니다. 더구나 천일염 가격이 오르고 장마로 채솟값이 올랐다잖아요. 이번 행사는 GS건설과 같이 가치 모금으로 마련한 여름 김치로, 920kg을 취약계층 184가구에 5kg씩 전했습니다.



‘도미솔 합창단’ 말복 맞이 치킨 파티

8월 10일 목요일, 말복을 맞아 <도미솔 합창단 치킨 파티>가 열렸습니다! 고양시사회복지협의회 “2023년 교촌치킨과 함께하는 간식타임” 선정을 통해 치킨 15마리를 후원받아 풍성하게 가졌습니다. 도미솔 합창단이 "고향의 봄", "모닥불", "별", "냉면"을 부른 후에 단원과 초청 이웃 등 28명이 레크레이션을 즐기고 치킨 파티를 즐겼답니다.

한빛동지 아프면 안 되요



동지 식구들 건강검진 받는 날

가족을 떠나 동지에서 사는 이용자들은 건강에 대한 걱정이 크지요. 특히 주용 씨는 검진받을때면 겁을 먹어 밥도 잘 못 먹을 정도입니다. 또 주사를 무서워하거나 병원을 싫어하는 이용자도 있지요. 세 팀으로 나누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진을 기다리는 이용자들의 얼굴엔 하나같이 긴장이 서려 있습니다. 주용 씨는 위내시경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얼굴에 웃음을 보였습니다.

‘모두 이상 없음.’ 갈 때와는 다르게 돌아올 때는 모두 즐거운 발걸음. 자, 이제 맛있는 간식 먹어요.

보내주신 음식 맛있게 먹었습니다. (6월 17일~8월 16일)



[개인]

강동룡(실습생) 피자, 강찬호(실습생) 간식
곽우경(실습생) 피자, 김상아(실습생) 음료
김승빈(후원자) 음료, 김 신(후원자) 아이스크림
김여은(후원자) 아이스크림, 김정화(실습생) 피자
박주용 부모님(이용자) 수박, 식재료, 애호박, 옥수수
백승윤(실습생) 커피믹스, 부부커피(후원자) 빵
부흥세탁소(후원자) 고추, 생고기, 식재료, 아이스크림, 채소
서민행(후원자) 음료, 송서아(후원자) 쌀
여일구(후원자) 생닭, 오늘닭강정(후원자) 닭강정
이용현(후원자) 음료, 익명(후원자) 계란, 과일
장은정(실습생) 냉동피자, 생선, 음료
정재덕 어머니(이용자) 과일
진 권 남동생(이용자) 커피, 최미희(실습생) 음료
함미용(실습생) 피자

[단체]

당가원 볶음밥, 자장면
롯데카드 식재료, 생활용품
리치몬드제과점 빵
푸드뱅크 빵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용품

새로 오신 강석순 사회복지사 선생님



어린이집 원장 경력

올 7월부터 서울시에서 사회복지사 한 명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어 새로 모시게 된 강석순선생님. 우리 이용자를 세심하고 친구처럼 돌봐주시는 모습이 남달라 놀랐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동안 어린이집을 운영하신 원장님이셨다고.

한뼘 기부회원이기도

또 선생님은 어린이집 원장 시절, 사회복지 공부할 때 한뼘 직원과 함께 학교를 다닌 인연으로 한동안 기부를 계속하신 소중한 분. 참 기꺼운 재회가 아닐 수 없네요. 오랫동안 우리 장애인들을 보듬어주세요.

실습 선생님의 깜짝 선물

무더위에 사회복지 실습을 오신 김재현 선생님이 깜짝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센터에서 식탁과 프로그램 활동에 사용하는 넓은 테이블을 새것으로 바꾸어주신 겁니다.님은 실습 중에도 눈빛을 반짝이며 남달리 적극적이셨지요. 테이블을 들여오던 날, ‘더 좋은 제품을 주지 못해 미안합니다.’라며 미안해하던 모습이 잊히지 않습니다. 김재현 실습생님, 멋진 사회복지사로서의 앞날을 기대합니다.



자원봉사자 해주신 학생들에게 감사드려요.

구주연, 박수빈, 허현정(이상 숙명여자대학생)

선물 고맙습니다.

푸드뱅크 : 빵 60개 박수빈 : 빵 1세트

김재현(실습생) : 테이블 2개

한기석, 원석현 : 빵 5세트, 음료 8개

최명숙 이사장 퇴임



최명숙 재단 이사장님이 지난 7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직을 퇴임 하였습니다.

이사장님은 지난 2014년, 재단이 어려울 때 대표이사를 떠맡은 후 6년 6개월 동안 재임하며 많은 난관을 헤쳐나오셨습니다.

2012년 처음 법인이사로 초빙된 후 2014~2017년 이사장, 그리고 장우형 이사장이 재임했던 2018~2019년 이후 다시 이사장 직을 맡아 2020~2023년 7월까지 재임하셨습니다. 최 이사장님의 숨은노고와 헌신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님은 효창동 구역 재개발 이후의 사업개발은 후임자가 맡아야 한 다며 사임하셨습니다. 이사회는 후임으로 백진양 선생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셨습니다.



특별기부금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김경미 20만원, 김보경 10원만, 김선희(미국 교민/날개달기 회원) 60만원, 신복금(전 직원) 40만원, 이진영 10만원, 익명 2만원.

45주년을 맞아 새 기부회원으로 등록하신 분을 박수로 환영합니다.

강필구, 금재호(백진양 추천), 김민호(김미숙), 김숙자, 박상도(김봉갑 추천), 박상우, 반종대, 백동현(백진양 추천), 엄해영(엄해경 추천), 오진균, 이선용(엄해경 추천), 이성순(민성숙 추천), 한덕희.

월 정기기부금을 올려주셨네요, 큰 용기를 받았습니다.

고명지(4만→5만), 김혜정(5천→1만), 나효진(1만→3만), 신성아(5천→1만), 신인아(5천→1만), 신화용(3만→5만), 심진섭(2만→5만), 오병철(1만→20만), 최재화(3만→5만).

육지가 버린 섬, 소록도 역사기행



고난의 왕관을 쓴 위대한 소록도! 아직 못 가보셨나요? 소록도, 저 질곡의 수난을 더듬으며 묵상하는 순례여행입니다. 소록도 관련 책을 펴낸 백진앙 선생이 인솔하고 해설합니다.

10월 1일(일)~2일(월) 1박 2일.

참가비는 추후 알려드립니다.

9월 23일까지 신청 바랍니다.

신청 : 02)393-0661

일본 관광, 올해는 못 가요



장애인 일본 오사카, 교토 관광길이 막혔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이 해제되면서 일본 전국의 노인, 장애인 관광객이 오사카와 교토로 몰려 장애인차량 예약이 올해 말까지 모두 종료되었답니다. 여기에 더해 버스 기사를 구할 수 없는 사정까지 겹쳤다고.



미얀마 유아차 선적

9월초 유아차 100대와 김육주 회원이 기증한 의류 5박스를 미얀마로 보냈습니다.

장애인 피부미용 서비스

지난 8월에는 6명이 서비스 받았습니다.

9월에는 23일(토) 열립니다.

45주년 축하금 보내준 회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지난 소식지에 게재한 축하금 기부회원 명단에 추가합니다)

고명지 10만. 광성기공사(유덕영) 10만. 김은생(창립회원/미국 교민) \$200.
김정희 100만(가브리엘의 집 원장/이사). 오상만(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 30만.
양옥연 10만. 임인경/최홍식(만리현감리교회 원로장로) 30만.



풍요의 가을입니다. 너그러운 열매 맺으시기를!

23년 06월 ~ 07월 입금내역. ()안은 개월 수

<미국 텍사스 교민 기부금>

달러(\$600)	킬린(\$370)				
7월	7월				
김윤원 \$200	아리 \$10	고향미 \$20	미영로사 \$20	이정숙 \$20	
장덕환 \$200	이안 \$10	김글라라 \$20	백수산나 \$30	장지수 \$20	
스텔라 \$150	루빈 \$10	김은희 \$20	유베로니카 \$20	조용순 \$20	
	노아 \$10	김데레사 \$20	이엘리자벳 \$20	최정임 \$30	
	제콧 \$10	김헬렌 \$20	이사벨라 \$20	허양욱 \$20	
		김혜중 \$20	이영란 \$30		
계 \$600	이영란 회원 7월부터 \$30으로 증액해주셨습니다.				

<한빛 재단>

- ▶ 1,000원 문숙자(2)
- ▶ 2,000원 김계순(덕양/2), 김미란(2)
- ▶ 3,000원 강희춘(2)
- ▼ 5,000원

강난규(2) 강병철(2) 강하늘/장은혜(2)
강하얀/장은혜(2) 공충식(2) 객안나(2)
곽환상(2) 구자근(2) 구재순(1) 김관중(2)
김대현(2) 김동수(2) 김명문(2) 김미영(2)
김선희(2) 김시흥(2) 김영희(2) 김유경(2)
김준혁(2) 김태호(2) 김향미(2) 김혜숙(몽독2)
김혜정(2) 나호연(2) 노수진(2) 류소연(2)
문혜원(2) 박범진(2) 박병건(2) 박상준(2)
박용훈(2) 박정민(2) 박지현(2) 배재수(2)
서동욱(2) 설대호(2) 신성아(2) 신인아(2)
신혜경(1) 엄민애(2) 오형균(2) 유경희(당산2)
유해국(2) 이동하/한귀남(2) 이란희(2)
이상희(2) 이승영(1) 이승희(2) 이양훈(2)
이종수(2) 이행남(2) 이호열(2) 임정리(2)
정길순/박지양(2) 정해숙(2) 조명순(2)
주우익(2) 최수진(2) 최원진(2) 한송이(2)
한진숙(2) 홍영일(2) 홍혜경(2)

▼ 10,000원

(주)상정무역(2) (주)영화의료기(2) 강석보(2)
강인호(2) 강필구(2) 구다원(2)
구영현/구인복(2) 구자석(2) 권수영(2)
권오원/주은혜(2) 권인순(2) 김경민(2)
김경석(2) 김교일(2) 김기석(2) 김남중(2)

김동진(2) 김려원(2) 김민수(1) 김범수(2)
김보경(2) 김상순(2) 김석미(2) 김수리(2)
김영지(2) 김옥남(2) 김완섭(2) 김용남(효창2)
김용선(2) 김윤대(2) 김윤숙(2) 김윤성(1)
김은숙(2) 김은자(2) 김인숙(부산2) 김자경(1)
김재환(2) 김종용/전정원(2) 김준형(2)
김진원(안산2) 김진현/이주원/이도원(2)
김철희(2) 김학철(2) 김한영(2) 김향(2)
김현준(2) 김형배(2) 김형식(2) 김화중(2)
나호진(2) 노현옥(2) 류희수(2) 민경양(2)
민운기(2) 민준홍(2) 박갑수(2) 박경남(2)
박상준(의정부2) 박선영(2) 박순화(2) 박영호(2)
박영희(2) 박윤미(2) 박인자(2) 박일현(2)
박종성(안양2) 박지숙(2) 박지훈/정선희(2)
박태진(2) 박혜정(2) 박희정(2) 방계영(2)
방상호(2) 배경미(2) 배춘숙/김신근(2) 봉근채(1)
서동범(2) 서동원(2) 서미란(2) 서영란(2)
석지민(2) 석지은(2) 석창록(1) 성경희(2)
송기영(2) 송유자(2) 신동혁(2) 신영길(2)
심우진(2) 심지은(2) 안병훈(2) 안성진(2)
안혜정(2) 양일섭(2) 오병철(1) 오상만(2)
오성근(2) 오용석(2) 오윤서(2) 오진균(2)
이건수(2) 이금주(2) 이동민(2) 이명욱(3)
이명진(2) 이명철(2) 이미지(2) 이민숙(2)
이삼선(2) 이상일(2) 이상조(2) 이성직(2)
이송균(2) 이수경(2) 이양재(2) 이영근(2)
이영환(2) 이외선(2) 이은주(2) 이재원(2)
이재임/정윤택(2) 이주희(은평,1) 이종태(2)

이지영(미아2) 이지원(2) 이진훈(2) 이호성(2)
임경민(2) 임동상(2) 임옥자/박병대(1)
임윤아(2) 장길성(2) 장치복(2) 장철성(2)
전미희(2) 전민우(2) 전소연(2) 전수익(2)
전현규(2) 전현민(2) 정규성(2) 정미영(2)
정봉열(2) 정석환(1) 정성훈(2) 정수연(2)
정수익(2) 정수화(2) 정승은(2) 정인기(2)
정창교(2) 정창용(2) 정태영(2) 정현주(2)
조근제(2) 조기권(2) 조선행(2) 조성숙(2)
조여숙(2) 조재선(3) 조진영(2) 조확기(2)
지형근(2) 천성현(2) 최강석(2) 최경임(2)
최명선(2) 최순희(2) 최준수(2) 최태도(2)
최효순(2) 최희환(1) 추정일(2) 태효원(2)
하정희(2) 한성진(2) 한혜숙(2) 함형덕(2)
허옥희(2) 홍관선(2) 홍대식(2) 황백화(2)
황연희(2) 황정일(2)

▶ 15,000원 김병석(2) 현영돈(2)

▼ 20,000원

(주)인스월드닷컴(2) 강만희(2) 강순화(2)
강영철(2) 강희정(2) 김민주(울산2) 김수현(2)
김승태(2) 김용신(2) 김인숙(2) 김준희(2)
김학준(2) 김혜은(2) 김훈(2) 문장렬(2)
박지웅/유정영(1) 백봉현(2) 백지웅(2) 변상순(2)
서성민(2) 신광재(2) 신금옥(2) 심경애(2)
안성환(2) 안현국/하미경(2) 양숙(2) 양홍대(2)
오정연(2) 유광주(2) 유시영(2) 이남숙(2)
이상규(2) 이서중(2) 이선용(2) 이성재(2)
이용현(2) 이정림(2) 이주형(2) 이희재(2)
임정순(2) 조윤식(2) 현승혜(2)

▼ 30,000원

강재철(2) 금재호(2) 김은경(1) 김홍현(2)
민유숙(2) 민정범(2) 박상우(2) 박용길(2)
신화용(2) 오청근(2) 윤경자(무악2) 이관희(2)
이선희(2) 이희달(2) 임용재(2) 장혜실(3)
정병배(2) 홍성관(2) 황영배(1)

▶ 35,000원 박종성(2)

▶ 40,000원 서판민(2)

▼ 50,000원

고명지(1) 김은영(2) 김은주(2) 김의규/구자명(3) (주)서버존(1) 강옥순(2) 김혜명(2) 박봉희(2)
김지웅(2) 김현수(2) 민택산업/남기백(2) 이승훈(2) 장영순(2)
알티엑스포츠(2) 엄혜령(2) 오명희(2) ▶ 100,000원 김삼복(2) 박형상(3)
이종우(2) 최혜자(2) ▶ 120,000원 최명숙(2)

▼ 100,000원

(주)우석엘리베이터(2) (주)휠로피아/김윤제(2)
강무진(2) 구태연(2) 김윤희(2) 박지연(2)
여재형/신지영(2) 오선환(2) 오정선(2) 이승수(2)
이영숙(2)

▶ 150,000원 채진석(2)

▶ 200,000원 오병철(1)

▶ 900,000원 뉴라이프교회(명지춘혜, 2)

〈휠체어날개달기〉

▶ 5,000원 조성우(2)

▼ 10,000원

고은미(2) 고은순(2) 권은희(2) 김계호(2)
김동현/김승기(1) 김명석(2) 김서주(2)
김소하(2) 김순영(2) 김순이(2) 김용환A(2)
김이태(2) 김정애(2) 김정자(2) 김정태(2)
김진모(1) 김창복(2) 김태윤(2)
김현숙(노원)(2) 김혜숙(2) 남향숙(2)
민혜영(2) 박만수(2) 박미애A(1) 박수경(2)
박신용(2) 박신자(2) 박옥자(2) 백마강(2)
백순정(2) 서정숙(2) 서판임(2) 손기현(2)
신승엽(2) 안종필(1) 안지민(2) 안지우(2)
양노식(2) 유은수(2) 윤민정(2) 이가영(2)
이광호(2) 이상분(2) 이영분(2) 이은영(2)
이은희(2) 이지영(2) 이장욱(2) 이재숙(2)
이지수(2) 이진수(2) 이해령(2) 이현경(2)
이형재(2) 이해선(2) 이희승/김향련(2)
임연하(2) 임찬예(2) 임채영(2) 임현주(2)
장궁자(2) 장은솔(2) 장은수(2) 장일순(2)
장진석(2) 장화순(2) 전도삼(2) 전영희(2)
전옥순(2) 전해경(2) 정금숙(2) 정나원(2)
정안나(2) 정애리(2) 정영순(2) 정우담/정원균(2)
정재갑(2) 정재호(2) 정재희/주희(2) 정현묵(2)
조용환(2) 조혜숙(2) 최광원(2) 최옥희(2)
최유경(2) 최윤지(2) 한정민(1) 한혜영(2)
홍경숙(2) 홍상문(2)

▼ 20,000원

강용희(2) 강인숙(2) 김경숙(2) 김덕길(2)
김영숙(2) 김일생(2) 김철상/이공이(2) 김효생(2)
박정경(2) 송경자(3) 오문영(2) 이상희(2)
이해숙(2) 장연우(2) 장지분(2) 장혜실(3)
장혜연(2) 전승원(2) 정경호(2) 조수현(2)
조승호(2) 최대우(2) 최정희(2) 최진숙(2)
한광희(2)

▼ 30,000원

(주)송지(2) 김옥수(2) 김옥주(2) 이태자(2)
최진경(2)

▼ 50,000원

(주)서버존(1) 강옥순(2) 김혜명(2) 박봉희(2)
이승훈(2) 장영순(2)
▶ 100,000원 김삼복(2) 박형상(3)
▶ 120,000원 최명숙(2)

〈한벗동지〉

▼ 5,000원

고현우(2) 공아영(2) 권명현(2) 기효순(2)
김계자(2) 김민서(2) 김승빈(2) 김용락(2)
김인경(2) 김재열(2) 류민경(1) 마은영(2)
맹덕섭(2) 문소현(2) 박미현(2) 박지숙(2)
박창범(2) 서정민(1) 송호림(2) 심상우(2)
양윤희(2) 양인희(2) 여희숙(2) 오현숙(2)
우지영(2) 육순우(2) 이현주(2) 이해란(2)
임정혜(2) 정민영(2) 정선희(2) 정정임(2)
조상은(1) 최은미(2) 한경희(2)

▼ 10,000원

강순기(2) 강유승(2) 강인수(2) 강훈선(2)
강현(2) 고유미(2) 광봉현(2) 광영현/장형기(2)
구성모(2) 구혜림(2) 권오준(2) 권지연(2)
김가홍(2) 김기래(2) 김면봉(2) 김명순(2)
김명희(일산2) 김미애(2) 김미진(2) 김병준(2)
김상수(2) 김상한(2) 김석겸(2) 김선옥(2)
김선향(2) 김성길(2) 김세연(2) 김연주(2)
김영승(2) 김영진(2) 김예찬(2) 김우주(2)
김윤근(2) 김윤희A(2) 김인곤(2) 김인순(2)
김인숙(2) 김정석(2) 김종국(2) 김태연(2)
김하나(2) 김혜정(2) 김호영(2) 남성현(2)
남진숙(2) 노신규(2) 노영진(2) 류재남(2)
류호승(2) 박리라(2) 박성준(2) 박일현(2)
박장훈(2) 박정숙(2) 박정신(2) 박지원(2)
박해진(2) 변기정(2) 변아름(2) 서동연(3)
서민향(2) 서인숙(2) 서정민(상암)(2) 성다혜(2)
소기자(2) 송옥진(2) 송은숙(2) 송재하(2)
안국희(1) 안영미(2) 양용준(2) 양정현(2)
양향자(2) 양현태(2) 여일구(2) 오광진(2)
오성진(2) 우기후(2) 우춘자(2) 원현선(2)
유민화(2) 유윤미(2) 윤정애(2) 윤태훈(2)
이강전(2) 이경진(2) 이상수A(1) 이상수B(2)
이성림(2) 이소정(2) 이승순(2) 이승연(2)
이승재(2) 이영순(2) 이예인(2) 이예준(2)
이옥순(2) 이용식(2) 이은숙(2) 이재호(2)
이종욱(2) 이지영(2) 이지현(1) 이태환(2)
이혜원(2) 이희권(2) 이희숙(동지2)
인보광/박수빈/박혜빈(2) 임경철(2) 임진민(2)
임진희(2) 임호정(2) 장순주(2) 장영숙(2)
장철만(2) 장현주(2) 전예스터(2)
정다미/김재훈(2) 정영석(2) 정영진(1) 정완교(2)
정은이(2) 정재영(2) 정진하(2) 정향남(1)

제갈윤(2) 조수연(2) 조인규(2) 채순옥(2)
채영심(2) 천병수(2) 최경희(2) 최미정(2)
최선영(2) 최순우(3) 최은미(서초2) 추지훈(2)
하인석(2) 한지행(2) 홍은정(2) 황진숙(2)

▼ 20,000원

강신순(2) 강희정(2) 김경란(2) 김미진(2)
김성우(2) 김여은(2) 김희량(2) 박승환(2)
백진선(2) 송선미(2) 우영욱(2) 원색범(2)
유선민(2) 이병수(2) 이선우/김연희(2)
이정림(2) 이지영(강서2) 조기택(2) 정명자(1)
정현주(2) 채순옥(2) 하복덕(2) 한재형(2)
한초택(2) 한혜림(2) 함중수/한정옥(2)
황민규(2) 현제준(1)

▼ 30,000원

권현정/김성철/김주영(2) 김계업(3) 김범준(2)
김연숙(2) 김윤영(2) 박희수(2) 서민행(2)
성낙일(2) 오법균(2) 윤일심(2) 이용기(3)
임재창(2) 임해숙(1) 정숙용(2) 정은영(2)
조길용(2) 조병훈(2) 채한석(2) 최갑석(2)
황정현(2)

▶ 40,000원 백승열(2)

▼ 50,000원

곽형우(2) 권영수(2) 김간란(4) 김종호(2)
김한서(2) 윤미선(2) 이태균(2) 조성윤(2)
조항미(2) 홍영미(2)

▼ 100,000원

김장욱(2) 박상봉(1) 유정자(2) 주지연(2)

▼ 200,000원

서부지방경찰청(1) 열림교회(1) 하대주(2)
▶ 424,000원 서강어린이집(1)

〈한벗동지와 함께하는
‘윤광이의 하루’〉



- ▶ 5,000원 박현민(2)
- ▼ 10,000원
- 구인회(2) 김규백(2) 김선식(2) 김왕수(2)
- 김진아(2) 안성윤(2) 이광석(2) 이수희(2)
- 이중현(2) 이준구(2) 이탄희(2) 임근태(2)
- 전경락(2) 정형선(2) 최봉계(2) 최원우(1)
- 홍원표(2)
- ▼ 20,000원
- 강완정(2) 강진구(2) 박성용(2) 박영숙(2)
- 손병산(2) 이강우(2)
- ▶ 30,000원 김경준(2) 김기수(2)
- ▶ 50,000원 김혜원(2) 유경환(2)
- ▶ 70,000원 최수진(2)
- ▼ 100,000원
- 강은모(2) 오유인(2) 이준구(2) 차성안(3)

〈한벗장애인주간보호시설〉

- ▶ 5,000원 김운수(2) 조승현(2)
- ▼ 10,000원
- 김미영/허규민(2) 김세훈(2) 김인기(2)
- 박채련(2) 양영춘(3) 윤준호(2) 이경주(2)
- 이경화/이기훈(2) 이수경(2) 이호식(2)
- 정미숙/박성수(2) 차경옥(2) 한정환(박종미)(1)
- ▶ 15,000원 김민정(2)
- ▼ 20,000원
- 김정훈(2) 김종범(1) 신효숙(2) 심진섭(1)
- 엄해경/김근일(2)
- ▼ 30,000원
- 신두철(2) 안소영(2) 오선주(2) 이원재(2)
- 한정환(한가현)(2)
- ▼ 50,000원
- 신현관(2) 심진섭(1) 장안태(2) 홍지웅(2)
- ▶ 100,000원 김현진(2)

〈미얀마어린이합창단〉

- ▶ 10,000원 이성순(1)

각별한 뜻으로
보내주신 기부금
옷깃을 여미고
받았습니다.
정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엄중히
사용하겠습니다.



한벗재단

통권 298호

폐년날 : 2023년 9월 10일
폐년이 : 백진양 만든 곳 : 한벗재단
주소 : 서울 용산구 효창원로 69길 42-3
전화 : 02)393-0661(대)
핸드폰 : 010-6747-0661
FAX : 02)712-6093
이메일 : hanbeotorg@hanmail.net
홈페이지 : www.hanbeot.org

한벗재단 임원

법인이사 : 백진양(대표) 장우형(부대표)
김윤원, 김정희, 김혜명, 유시영,
채진석, 최명숙.

운영위원 : 강제숙, 임춘규, 이승우, 임정숙,
장혜선, 조재선, 청년한벗, 한동훈, 현승해.

부서별 연락번호

한벗동지 : 02)336-3100
주간보호실 : 02)713-5050
휠체어기증본부 : 02)713-1005
한벗투어 : 02)702-1515
고양시지속종합복지관 : 02)381-8938

재정보고 (23.06월~23.07월/2개월 합산)

단위 : 원

세입			세출		
내역	금액		내역	금액	
기부금	정기기부(재단)	12,801,000	인건비	급여, 사회보험	14,715,771
	특별기부금	17,050,000	시설지원	등지, 주간, 지촉	9,790,000
	45주년 기부금	15,429,200	공과금	보험료 등	1,627,312
	미국교민기부금	2,601,588	운영비	수용비, 공공요금 등	4,574,114
	등지/주간	7,035,000	업무비	접대비 등	900,100
	날개달기	4,590,000	간행비	소식지, 우송비	2,355,370
	방정환기금	1,536,000	상환금	원금, 이자	7,856,998
	소계	61,042,788		휠체어날개달기	3,850,000
임대수입	원룸관리비 등	1,773,057	사업비	방정환기금	3,523,900
보조금	서울시 보조금	7,928,833		게스트룸	34,420
사업수입	휠체어보증금	1,505,075		장애인 피부미용	89,860
차입금	차입금	3,370,000		장애인 여행지원	6,961,940
기타	잡수입	249,696		보조기기 지원	400,000
	예금이자수입	5,773		황기순 기탁사업	1,729,420
				45주년 기념식	15,798,300
				소외계층지원	564,200
				기타 해외지원	1,180,943
총계	75,875,222		총계	75,952,648	
			잔액	-78,626	

※ 위 보고는 시설을 제외한 재단본부 재정 내용입니다.

20년 만의 여행



마지막 불공

마지막 여행



지난 7월 말, 서울을 빠져나가는 휴가 차량으로 거대한 주차장이 된 고속도로.
여행은 이제 명령이 되었다. 하지만 이 대열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생의 말기에 놓인 사람들,
언제 죽음이 닥칠지 모르는 희귀난치병 장애인들.
이런 분들이야말로 약 냄새 찝듯 침상에서 잠시라도 벗어나고 싶다. 마지막 한 번만이라도-.

마지막 소원

‘당신이 이 세상과 작별해야 할 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누구나 언젠가는 이 물음을 받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 당신은 무엇을 바랄 것인가?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사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 마지막으로 가고 싶은 곳…….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는 사람들

유럽과 미국 등에는 마지막 여행 소원을 들어주는 자원봉사단체가 있다. 누구는 가족과 여행을 원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고향, 또는 산이나 바다를 보고 싶어 한다. 하지만 침대에 누운 환자가
여행하려면 비용과 손이 많이 든다. 이에 자원봉사자들이 나선다.
모든 비용을 모금으로 조달한다.



【자원봉사자를 기다립니다.】

한번도 마지막 여행(나들이)을 지원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무엇보다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
차량 운전, 환자 돌봄(응급의료), 사진 촬영,
여행지 정보, 말벗, 모금 등등,
침대를 실을 수 있는 전용 특수차량도 필요하다.

참여할 자원봉사자를 기다립니다.

02-393-0661

◀소아암 어린이의 소원(동물원 구경)